

블랙핑크, 도쿄돔 공연 16만명 관객 열광

월드투어 '데드라인' 성황
랜드마크 분홍빛 점등
24~26일 홍콩서 마침표
내달 새 미니앨범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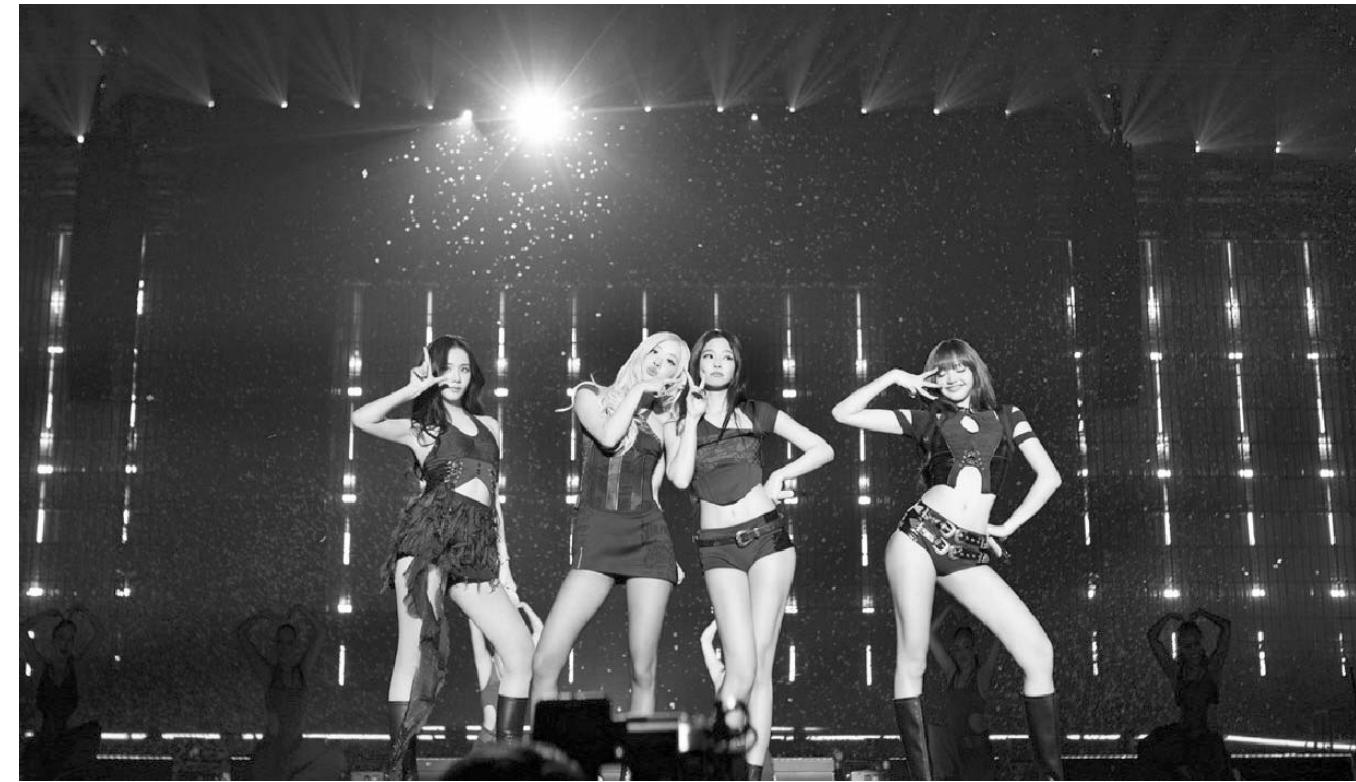
걸그룹 블랙핑크가 일본 도쿄돔에서 사흘간 월드투어를 열어 관객 16만여 명을 모았다.

2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16~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데드라인' (DEADLINE)을 개최했다.

블랙핑크가 도쿄돔에서 공연한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흘간 열린 공연은 모든 회차가 매진됐고 관객 총 16만5000명이 입장했다. 공연 첫날에는 도쿄타워, 고베 포트타워 등 일본 4개 타워를 블랙핑크 상징색인 분홍색으로 점등하는 행사도 열렸다.

블랙핑크는 '킬 디스 러브' (Kill This Love), '핑크 베놈' (Pink Venom) 등의 히트곡으로 공연을



블랙핑크 도쿄돔 콘서트 모습.

시작한 뒤, 데뷔곡 '휘파람'부터 지난해 7월 발매한 노래 '뛰어'까지 팀의 역사를 종망라하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을 열광시켰다.

블랙핑크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 가 아쉽다. 3일 동안 정말 큰 에너지를 받았다"며 "한 분 한 분께 사

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돔 콘서트를 마친 블랙핑크는 오는 24~26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7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한 블랙핑크는

16개 도시에서 33회에 걸쳐 공연을 열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27일 미니앨범 '데드라인'을 발매한다. 블랙핑크가 새 앨범을 발매하는 것은 정규 2집 '본 핑크' (BORN PINK)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구교환·고윤정, '나의 아저씨' 박해영 작가 신작서 호흡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 차영훈 감독 연출… 상반기 첫 방송



배우 구교환, 고윤정, 오정세, 강말금, 박해준(왼쪽부터). 각 소속사 제공

배우 구교환과 고윤정이 '나의 아저씨'를 쓴 박해영 작가의 신작에 서 함께 호흡을 맞춘다.

JTBC는 올해 상반기 방송 예정인 박 작가의 새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 구교환과 고윤정, 오정세, 강말금, 박해준이 출연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절단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리는 인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한 인간이 평화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구교환은 영화계 유명 모임 '8인 회' 중 유일하게 아직 데뷔하지 못한 예비 영화감독으로, 불안에 떨

면서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들끼지 않으려고 요란하게 허우적거리는 인물 활동만을 연기한다. 고윤정은 날카로운 시나리오 리뷰로 '도끼'라는 별명을 얻은 영화사 최필름 PD 변은아 역을 맡았다.

박해준은 동만의 형으로 전직 시인이지만 현재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황진민으로 등장한다. 오정세는 다섯 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영화사 고박필름 소속 감독이자 활동만과 지독한 애증으로 얹힌 인물 백경

세를, 강말금은 고박필름 대표이자 경제의 아내인 고혜진을 연기한다.

이 작품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접팔한 박 작가의 신작

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출은 '동백꽃 필 무렵', '헬컴투 삼달리' 등을 만든 차영훈 감독이 맡았다. 연합뉴스

'주토피아2' 역대 최고 흥행 전세계 매출 2조5000억 원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17억 달러를 벌어들여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주토피아 2'는 이날까지 북미 지역 3억9324만 달러, 북미 외 지역 13억1330만 달러를 합해 전 세계에서 17억654만 달러(약 2조5142억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인사이드 아웃 2'가 거둬들인 16억9886만 달러를 넘어 역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 수입이다.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전체 영화를 통틀어 '주토피아 2'는 전 세계 9위 흥행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표현한 '서퍼케이트' (Suffocate) 등 9곡이 수록됐다.

'크라운'은 애틀랜타 트랩 드럼과 헤비메탈 기타,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신시사이저 연주가 돋보이는 하드 댄스곡이다. 소중한 존재를 왕관에 비유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는 간절함을 담아냈다.

엑소는 '크라운' 뮤직비디오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멤버들은 영상에서 다양한 상징과 함께 왕관을 거머쥐고 머리에 쓰는 듯한 앙무를 선보인다.

앞서 멤버들이 차례로 입대하며 공백기를 보냈던 엑소는 지난해 9월 세훈을 끝으로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팬 미팅을 열고 팀 활동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엑소, 정규 8집 '리버스(Reverxe)' 발매

타이틀곡은 '크라운'

그룹 엑소가 2년여 만의 정규앨범으로 귀환을 알린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가 지난 19일 오후 6시 정규 8집 '리버스(Reverxe)'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리버스'는 엑소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정규 7집 '에지스트' (EXIST) 이후 2년 6개월 만에 내놓는 앨범이다. 이번 앨범 활동에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 등 여섯 멤버가 참여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크라운' (Crown)을 비롯해 포근한 분위기의 겨울 노래 '아임 홈' (I'm Home), 이별의 아픔을 절제된 분위기로



엑소, 정규 8집 '리버스' 발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라이온 킹' 공동 감독 로저 알리스 별세

1990년대 미국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 황금기를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로저 알리스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저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스 감독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아이저 CEO는 "알리스의 작품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한 시대를 정의 했다"라며 "디즈니는 그의 업적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스는 1994년 개봉한 '라이온 킹'을 롭 민코프 감독과 공동 연출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알리스는 1982년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실사 촬영을 결합한 최초의 장편 영화 '트론'의 제작 콘셉트 작업에 참여하면서 디즈니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올리버와 친구들', '인어공주'의 스토리 작업에 참여했고, '미녀와 애수'에서는 스토리 총괄을 담당하는 등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대표작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디즈니 동료였던 데이브 보서트는 "알리스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브랜드를 담당하는 등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대표작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추모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기극장 8:25 이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11:10 시사기획 창(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TV 유치원 7:30 국도망 대한민국 8:50 생활정보 스페셜 9:30 일드리마 10:10 KBS 뉴스(재) 10:30 인기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10:50 PD수첩(재) 11:15 첫아기는 꾸벅교실 11:45 팬티하이어2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2026 설맞이 홈&리빙 8:40 뉴스풀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PD수첩(재)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수상한 방송국 9:40 글로벌 특선 드라마 10:30 한국기행 12:10 존슨 보러 세계일주 13:00 EBS 평생학교 16:10 디.XR 디.XR 17:40 티셔츠와 춤하고 노래해요 18:00 블비와 하이힐의 직장습격 19:50 세이프에 나쁜 개는 없다 2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방수배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5:10 아린이동물티비(재) 15:40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함께, 우리 15:45 팔도방상 스페셜(재) 16:00 시청자권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KBS 뉴스 5 17:30 텐나는 제주	12:30 옥팅방의 문제아들(재) 13:05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스페셜(재)	12:00 12 MBC 뉴스 12:45 월드컵 13:25 헬로키즈 13:55 첫 번째 여성 15:00 텐마리풀리 15:45 캠슬리너버(재) 16:00 TV 유치원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스클루 시즌2 17:15 강치 앤솔랜드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2:00 SBS 12 뉴스 12:45 월드컵 13:00 보석아이네 간강 수다 14:00 뉴스브리핑 15:00 텐마리풀리 15:55 기분 좋은 날(재) 16:00 네모세모 17:00 SBS 오늘스 17:15 JIBS 저녁 뉴스 17:30 애니갤러리	9:00 KCTV 9시 뉴스 9:40 영리디스 포럼 제주 11:30 아침 뉴스 12:00 드레블 13:30 여관 들고 등짝 스마싱 15:30 우리동네 하이로 시즌1 16:00 텐마리풀리 17:40 아띠아 어른 19:00 KCTV 종합뉴스 19:30 흥행극장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토론판제주 20:30 일일연속극 마리온 벨난 이빠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활방사의 비밀 22:50 KBS 뉴스와인W 23:30 이슈 픽 셈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활정보 19:50 일일드라마 천밀한 리플리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온에는 도적님이(재)	18:05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스페셜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판사 이한영(재) 21:50 토일 미니리얼 온에는 도적님이(재)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한터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꿀 때리는 그녀들 22:50 오늘부터 인간입니다(재)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베지털의 뉴스특집 530 18:00 한편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93.3MHz 90.9MHz 7:10 김현정의 뉴스 9:00 그대 창기애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93.5MHz 90.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리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1일
	36년 문서 계약운이 흥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계구설의 시끄러움이 틀린다. 매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치거나 시대와 달리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각별히 주의. 72년 자식 문제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 다투기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함을 잊지 마라.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문단속 주의. 부부금실 적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물리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38년 자신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긴장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외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고장이나 업무의 하자로 주변이 된다. 74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오고 억략이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꿔 보려고 마음이 있다.
	39년 산 정상을 밟아본